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문) 갑은 사업을 하다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서 약속어음부도를 내고 조세를 체납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을의 승낙을 받아 을명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을의 이름으로 종전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기계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어음부도 및 조세문제 등이 해결되자 을명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형식을 취하고 을명의 사업자등록의 폐업

신고한 후 종전과 같은 상호로 자신을 대표자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위 기계공급계약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를 밝혔고, 병 또한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을이 기계제작 기술자로서 갑의 직원으로 갑의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다른 인수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병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답)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타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重疊的)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자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

의 귀속관계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자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여 그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로 승낙을 하였고, 그 계약의 상대방도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법률상 효과는 승낙을 한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위 기계의 제작·설치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병은 갑·을에게 연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연 기자의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많이 생기게 된다는 뫼지리나 집터 15.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사람이 기른 산삼 18. 침한 대라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이르는 말 20.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

세로열쇠 = 2.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구 3. 춤을 추면서 낮게 가로놓인 막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게임 4. 신라때의 화랑의 무리 5.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성어 7. 자신의 행동으로 성공 또는 실패하는 결과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학습방식 9. 사실에 토대를 두어 진리를 탐구하는 일, 조선시대 실학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10. 남 괴롭히는 것을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무리 12.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 13. 생각이나 판단력이 분명하고 똑똑함. 두뇌가 00하다 14.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16. 미국 샌프란시스코 만과 태평양을 잇는 골든게이트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교 17. 신라때 해상왕으로 불리며 청해진 대사로 해적을 완전 소탕했던 무장 19. 침과 뜸을 아울러 이르는 말.

가로열쇠 = 1. 농업정책, 농산지원, 축산지원, 산림조성 등을 담당하는 고성군 부서. 오세종 과장 4. 용을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 5.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 6. 밥을 담는 작은 그릇에 반찬을 곁들여 담는 밥 8. 응급환자는 이곳으로 가죠 10. 비행기가 고장이나 기상 악화로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착륙하는 것을 이르는 말 11. 칠월철석 13.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낱말 맞추기 코너는 본지 원광연 기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넣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681-1666)

※정답을 적어 <219-80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고성신문사 낱말맞추기 담당자 앞>이나 팩스(☎033-681-1668)로 보내주시면 1명을 추첨해 농협상품권(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도착한 정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당첨자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호(제44호) 정답

●정답자 : 변은심 (고성군 토성면 천진 7길 16)

접	경	개	발	기	획	단		골	무
		마							지
주		고	육	지	책		기	지	개
섬		원			사	카	린		
주							아		
섬	진	강				요			
		성	골		아	가	페		
첨	성	대			라		루	브	르
가		국			온			릭	
물			송	지	호			스	시

고성신문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 ◇구 독 료 : 월 4,000원(1년 선금 4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072-9350-81
- ◇예 금 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주식회사 고성신문

문의 ☎033-681-1667